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

김고운*, 오혜원**, 김환***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과학과 작업치료전공*, 우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과***

The effect of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on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for adult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Ko-Un Kim*, Hye-Won Oh**, Hwan Kim***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Woosuk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본 연구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실제 사회참여가 필요한 성인기 이후의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기 위해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 44명을 대상으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으로 나눠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사회참여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참여척도(K-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K-CPI)를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의 결과 자기효능감의 경우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자기효능감의 점수가 더 많이 증가하였고, 실험군에서는 점수의 변화가 유의하였으나($p < .05$), 대조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참여의 경우 실험군에서 더 많은 증가와 함께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p < .05$). 이러한 결과는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에게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의 향상에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지적장애인,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사회참여, 자기효능감, 작업치료

Abstract This study applied an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to adults, aged 18 years or mor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residing in a local community, and examined the effects of the program on participants'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To obtain basic data for the program, 44 adul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he experimental group, to which an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was applied, and the control group, to which the program was not applied. A self-efficacy scale and the K-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CPI) were used to assess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showed a greater increase in self-efficacy than the control group ($p < 0.05$). Similarly, a greater increase in the CPI scores was observed in the experimental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The changes in the experimental group were significant ($p < 0.05$), but those in the control group were not.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can improve self-efficacy and social participation in adults with an intellectual disability.

Key Words : Intellectual disability,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Self-efficacy, Social participation, Occupational therapy

Received 26 December 2016, Revised 31 Jan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Whan-Kim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Daegu University)
Email: hwankindaegu@naver.com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지적장애(intellectual disability, intellectual developmental disorder)란 지적 기능 및 적응 기능의 결함이 발달기에 발병하는 장애로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 등의 여러 환경에서 의사소통, 독립적인 사회참여에 제한을 가지고 온다[1].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자기효능감이 있다. 자기효능감이란 “성공적인 결과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노력에 대한 신념”으로 이러한 것은 환경적인 외적이 요인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인 특성과 수행에 연관성이 있다[3,4].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수행 성취 경험이 있으며, 이는 자기효능감에 강력하게 작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5,6].

지적장애인의 대부분은 지역사회 참여에 제약을 가지며, 이러한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social participation)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일상생활 활동, 여가, 직업 참여에 필요한 기술에 어려움을 가지며, 지역사회 참여의 경우 신체적인 활동, 정신적인 활동, 사회참여, 독립적인 생활, 삶의 만족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7,8].

이러한 사회참여 확대 및 자기효능감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전환 프로그램이 대두되고 있다. 전환 프로그램이란 지역사회에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장애학생이 학령기뿐만 아니라 학교를 졸업한 이후 생활해야 할 지역사회 환경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살아가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중요한 방법이다[9].

전환 프로그램은 단순한 적응훈련과는 다른 개념으로 체계적이며, 집중적인 교수 과정으로 어떠한 기능적인 생활 기술을 장애인이 직접 배우며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하는 것을 일컫는 교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10,11].

이러한 전환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평가 및 중재를 할 수 있는 전문가 중의 하나로 작업치료사를 들 수 있다 [12]. 작업치료사는 지역사회 참여 및 직업과 관련한 평가 중재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전문가로 아이들을 위해서 초기 중재부터 학교 서비스까지, 학교생활부터 성인의 삶까지 성공적으로 전환하는 것을 도와준다 [12,13]. 즉, 작업치료사는 장애를 가진 아동, 청소년, 성

인의 전환 시기에 어려움을 가질 때,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 성공적인 사회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중의 하나이다[12,13]. 작업치료는 초기 중재와 관련 서비스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작업치료사들은 전환 프로그램 팀의 일부가 될 수 있다. 특히 전환 프로그램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12,13].

작업치료사들이 전환 프로그램에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은 수행 기술, 전환 계획 프로그램에 대한 협력으로 구체적으로 일상생활활동, 일, 레저, 지역사회참여의 영역이 포함될 수 있다[13]. 또한, 성공적인 전환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각각의 개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occupation)을 통한 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연구는 대부분 해외 연구이며, 국내의 전환 프로그램은 대부분 직업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회참여 및 사회참여에 중요한 요소인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전환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평가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이다. 국내 선행연구에 의하면 작업치료사가 포함된 전환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또한 기존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운동학습, 신체기능, 설문조사, 시지각 기능 등의 실질적인 지역사회 참여보다는 각 기능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어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연계성에 대한 연계가 부족한 현실이다[14,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관을 다니는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사회참여를 해야 하는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작업치료사가 주도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지적장애인에게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사회참여가 필요한 성인기 이후의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가 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한 그룹과 실시하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 전과 실험 후에 사회참여 및 자기효능감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상자는 2015년 8월 12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복지시설을 이용 중인 18세 이상 지적장애인 44명을 대상으로 7주간 주 3회 총 20회기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실험연구로서 통제집단 사전 사후 측정 설계 (posttest - only control group design) 적용하여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실험군 22명, 대조군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전문가 논의를 통해 본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 기준을 선정 후, 기관에서 연구 대상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대상자 중 모두 참여에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들은 무작위 배치를 우선으로 집단을 나누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대상자는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한 지적 장애등급이 2~3급인 지능지수 35 이상 70미만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수용성 및 표현 어휘력 검사 결과 8세 이상인자 또는 MMSE-K 지시 따르기에서 2단계 지시 따르기가 가능한 자 또는 설문지의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중 2명의 전문가가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설문지의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 시 연구자가 쉬운 단어로 설명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군(experimental group)은 남성은 13명(59.1%), 여성은 9명(40.9%)이며, 대조군에서는 남성은 14명(63.6%), 여성은 8(36.4%)로 비슷한 분포를 가졌다. 연령은 실험군에서 평균 27.09±4.90세, 대조군 28.45±8.94세로 비슷한 연령대를 가졌으며, 교육수준은 실험군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17명(77.3%), 대학교 졸업 이상이 5명(22.7%)이었으며, 대조군에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 20명(90.9%), 대학교 졸업 이상이 2명(9.1%)을 나타내었다. 직업을 살펴보면, 실험군에서 학생이 12명(54.5%)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을 가지지 않거나 직업을 가진 경우가 각각 8명(36.4%), 2명(9.1%)이었으며, 대조군에서도 직업을 가지지 않은 경우가 11명(50.0%), 학생은 6명(27.3%), 직업을 가진 경우가 5명(22.7%)을 나타냈다. 주거 형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부모님과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은 18명(81.8%), 21명(95.5%)로 나타났다. 주거 지역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도시에서 거주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20명(90.9%)와 22명(100%)로 나타났다. 장애등급은 두 집단 모두에서 3급이 가장 많은 15명(68.8%)와 18명(81.8%)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es of the subjects

| Categories | | experimental group (n=22) | control group (n=22) | t/p |
|----------------------|-------------------|---------------------------|----------------------|----------|
| | | N(%) | N(%) | |
| Gender | Male | 13(59.1) | 14(63.6) | 1.00/.33 |
| | Female | 9(40.9) | 8(36.4) | |
| age | | 27.09±4.90 | 28.45±8.94 | -7.0/.49 |
| Education | high school | 17(77.3) | 20(90.9) | 1.82/.08 |
| | university | 5(22.7) | 2(9.1) | |
| occupational | None | 8(36.4) | 11(50.0) | -.25/.80 |
| | has an occupation | 2(9.1) | 5(22.7) | |
| | student | 12(54.5) | 6(27.3) | |
| Living situation | alone | 2(6.9) | 1(4.5) | .568/.58 |
| | parents | 18(81.8) | 21(95.5) | |
| | relatives | 2(9.1) | 0(0) | |
| Residential area | city | 20(90.9) | 22(100) | 1.45/.16 |
| | other than city | 2(9.1) | 0(0) | |
| degree of disability | 2 | 7(31.8) | 4(18.2) | 1.82/.08 |
| | 3 | 15(68.2) | 18(81.8) | |

2.2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의 영역 및 수행기능은 작업치료 실행의 틀(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3; OTPF-3)[16]을 참고로 하여 Kardos와 White(2005)[12]에서 제시한 전환 계획, 서원지(2014)[9]에서 적용한 지역사회 중심 전환 프로그램, 김진호와 김영준(2012)[17]가 제시한 지적장애인의 자립과 성인 생활에 필요한 기능적 생활 기술의 내용을 분석하여 지적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 활동을 선정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바탕은 Wynn 등(2006)[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론적 모델 중의 하나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client-centered model)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선정 과정은 현장조사, 문헌조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2명, 작업치료사 2명, 자문교수 2명과의 협의를 거쳐 사용하였다. 문헌조사를 통해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활동을 개발하여 내용을 정하였다. 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요구가 반영되도록 검증을 실시하여 각 내용의 영역에 맞게 구성을 한 뒤 자문교수의 의견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최종 구성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구성에 2명의 지적장애인에게 캐나다 작업 수행평가(COPM)를 사용하여 의미 있는 작업을 세부내용에 반영하여 다른 전환 프로그램과는 차별적으로 대상자에게 보다 의미 있는 작업 내용을 포함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실시는 1명의 작업치료사의 주도 하에 담당자 2명과 보조 인력 4명이 배치되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Table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매 회기 당 주요 수행기능을 실시하였으며, 각 회기 당 소요시간은 40분 내외로 하였고, 프로그램의 적용은 한 그룹 당 2~3명으로 구성하여 각 그룹별로 작업치료사, 담당자 또는 보조 인력의 주도하에 실시하였다.

<Table 2> The occupation-centered transition program

| domain | session | categories | example |
|------------------|---------|-----------------------------------|--|
| ADL, IADL | 1 | self care | self care, dressing, grooming |
| | 2 | health management and maintenance | physical training, taking nutrition, reduce of health risk behavior, take medicine |
| | 3 | safety and emergency maintenance | dangerous situation recognition, emergency response, call an ambulance, lock up the door |
| | 4 | financial management | calculate money, keep household accounts, use of calculator |
| | 5 | hom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 save in money, use washing machine, house cleaning |
| | 6 | meal preparation and cleaning | understand cookery, prepare meals, treat to a meal, dish-washing |
| | 7 | community mobility | using bus, using taxi |
| | 8 | communication | using smartphone using computer |
| | 9 | care of others | care of family or friends |
| leisure and play | 10 | leisure exploration | kind, interesting, situation |
| | 11 | leisure participation | participation in leisure in interesting |
| | 12 | play exploration | Direct participation to the leisure activities and interest. |
| | 13 | play participation | Alone your own game of their choice to put into practice or other with a group of people together. |
| occupation | 14 | volunteer exploration | Find volunteer work that can do it in the community. |
| | 15 | volunteer participation | carry out volunteer work |
| | 16 | occupational choice and plan | essential requirement for the job, job attitude check, key job requirements |
| | 17 | pre-vocation training | to create a resume, to create a job related documents. |
| | 18 | interview skills | Mock interviews |
| | 19 | workplace etiquette | phone etiquette, etiquette to know one's boss and colleagues |
| | 20 | risk trade skills | how to use tools. Elevator safety rules |

2.3 연구도구

2.3.1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을 근거로 Sherer 등 (1982)[17]이 만든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ale) 36문항을 홍혜영(1995)[20]이 수정 및 보완하여 만든 총 23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일반적 자기 효능감 17 문항과 사회적 자기효능감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식 평정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홍혜영(1995)[20]의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의 신뢰도 계수는 .86이었다.

2.3.2 사회참여척도(K-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K-CPI)

Heinemann 등 (2011)[19]이 개발한 CPI(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를 김은주(2014)[22]가 번역한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평가하는 객관적, 주관적인 평가도구인 K-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K-CPI)를 이용해 지역사회참여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수준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사회참여 척도 20문항을 제외한, 주관적 척도인 48개의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식 평정 척도이며, 7개의 역 채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참여가 높음을 의미한다. 김은주(2014)[22]의 연구 결과 신뢰도는 .95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의 총점을 사용하였다.

2.4 연구 방법

본 연구의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은 2015년 8월 12일부터 2015년 9월 25일까지 실시하였다. 7주간 주 3회 총 20회기로 40분 내외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각 회기마다 프로그램의 내용에 이론에 관한 것은 각 시설의 회의실에서 실시하였고, 실습의 경우 각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직접 실시하였다. 이론의 경우 2~3명을 그룹으로 설정 후 각 회기당 주제 및 내용에 대해 그룹치료 형식으로 설명하였으며, 실습의 경우 1:1로 각 대상자에게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작업치료사, 담당자, 보조 인력의 개별적인 설명으로 각 내용을 이해하도록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실시

과정은 이론 및 각 회기 당 내용 설명 10분, 프로그램 실습 25분, 질문 및 다음 회기 소개 5분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실시 순서는 각 영역별로 실시하였다. 즉, 일상생활 활동을 실시 후 여가 및 놀이 영역, 직업 영역으로 각 영역에 대한 회기가 끝난 후 다른 영역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각 또한 본 프로그램은 각 기관에서 주어진 여가시간에 참여 실시하였으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각자 원하는 의미 있는 작업을 자유롭게 실시하였다.

2.5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 통계 방법을 통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적용 전 실험군과 비교집단의 그룹 간의 일반적인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 T 검정을 통해 각 그룹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전과 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의 점수 총점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또한,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의 총점의 점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각 요인의 사전 점수를 공변량(Covariate)으로 통제하고 실험군과 비교집단 간의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그 차이를 알아보았으며, 사후 검사 점수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 적용 효과 이외의 개인적인 요소의 차이로 인해 다른 변인으로 생긴 오차를 없애서 최대한 순수한 독립변인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ANCOV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각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유의 수준은 $\alpha=.05$ 로 하였다.

3. 결과

3.1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적용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위하여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사전 값과 사후 값의 점수를 알아보았다. 실험군에서는 사전

값의 평균이 2.46점에서 사후 값이 2.70점으로 .24점 상승되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사전 값이 2.68점에서 2.70점으로 .02점 상승되었다. 실험군에서 점수의 변화가 유의하였으나, 대조군에서의 점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의 사후 집단의 평균값은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 2.70점으로 같게 나타났다 <Table 3>.

사전 값을 공변량으로 하고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참여 점수를 이용하여 공변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알 수 있듯이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사전 점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대조군과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48.60, p<.0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4>.

<Table 3> Comparison of self-efficacy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 | pre | post | t | p |
|--------------------|----------|----------|------|-----|
| | Mean±SD | Mean±SD | | |
| experimental group | 2.46±.26 | 2.70±.26 | 9.77 | .00 |
| control group | 2.68±.35 | 2.70±.35 | 1.48 | .15 |

<Table 4> Self-efficacy covaria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post test

| source | Type III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Sig. |
|---------------------|-------------------------|-------|-------------|--------|------|
| covariate (pretest) | 3.54 | 1.00 | 3.54 | 387.52 | .00 |
| group | .44 | 1.00 | .44 | 48.60 | .00 |
| error | .37 | 41.00 | .01 | | |
| total | 325.29 | 44.00 | | | |

3.2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이 사회참여에 미치는 효과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인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이 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위하여 대응 표본 T 검정을 통해 사전 값과 사후 값의 점수를 알아보았다. 실험군에서는 사전 검사의 값의 평균이 114.48점에서 사후 값이 124.39로 9.91점 상승되었으며, 대조군에서는 사전 값이 118.62점에서 119.24점으로 .62점 상승되었다. 실험

군에서 점수의 변화가 유의하였으나, 대조군에서의 점수 변화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의 사후집단의 평균값은 실험군이 124.39점, 대조군이 119.24점으로 실험군이 대조군보다 5.15점 높게 나타났다<Table 5>. 사전 값을 공변량으로 하고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사회참여 점수를 이용하여 공변량 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아래의 <Table 5>와 같다.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사전 점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대조군과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 사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4.31, p<.05$).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은 지적장애를 가진 성인의 사회 참여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5>.

<Table 5> Comparison of social participation between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

| | pre | post | t | p |
|--------------------|--------------|--------------|------|------|
| | Mean±SD | Mean±SD | | |
| experimental group | 114.48±13.36 | 124.39±23.00 | 5.15 | 0.00 |
| control group | 118.62±10.61 | 119.24±10.00 | .51 | .62 |

<Table 6> Social participation covariance analysis according to the post test

| source | Type III Sum of Squares | df | Mean Square | F | Sig. |
|---------------------|-------------------------|-------|-------------|-------|------|
| covariate (pretest) | 3198.23 | 1.00 | 3198.23 | 64.94 | .00 |
| group | 704.60 | 1.00 | 704.60 | 14.31 | .00 |
| error | 2019.06 | 41.00 | 49.25 | | |
| total | 659673.00 | 44.00 | | | |

4. 고찰

본 연구는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7주간 주 3회 총 20회기로 각 회기당 40분 내외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한 실험군 22명과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 2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목적은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이 18세 이상의 성인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향후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회 참여에 필요한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은 성인 지적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Wynn 등(2006)[18]의 연구에서 주장한 지역사회 역량 증진 포럼(community capacity-building (CCB) forum)의 목적인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프로그램으로 Wynn 등(2006)[18]의 연구에서 사용한 이론적 모델 중의 하나인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client-centered model)을 바탕으로 지적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이다.

Juan 와 Swinth(2010)[23]에 의하면 작업치료사가 전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치료적 방법으로 가족과 클라이언트 중심의 목표 설정 및 인터뷰, 가족과 클라이언트의 인터뷰 직업 전 프로그램 참여 및 개발, 여가 탐색 및 선택의 기회 제공, 일상생활활동 및 수단적 일상생활활동의 기술 발달, 가족, 교사, 다른 팀원들의 지원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Juan와 Swinth(2010)[23]가 제시한 영역을 포함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재 전과 후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참여 및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40명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8주간 지역사회 기술을 제공한 결과 지역사회 참여 기술이 증진했다는 Drysdale 등(2008)[24]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된 기술을 교실과 같이 한정된 공간에서 중재했다면, 기술을 익힌 후 지역사회 기본 기술을 응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적장애인에게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 중 지적장애인에게 의미 있는 작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참여에 필요한 여러 기술을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 포함하여, 사회참여의 시설 중의 하나인 복지관에서 실시하여 효과적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직업준비에 필요한 기술을 포함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지적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은하와 박승희(2013)[25]의 연구에서 20명의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개인 중심 계획(person-centered planning)

을 활용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적용 시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본 연구에서 직업준비에 관한 내용을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에 포함함으로써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김은하와 박승희(2013)[25]의 연구에서는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만으로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효능감이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부모, 학생, 특수교사만 포함되어 직업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하지 못하였고, 자기효능감의 증가가 직업과 관련된 지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질적인 지역사회에서 직업준비와 관련된 기술을 실시 및 직업교육의 전문가 중의 하나인 작업치료사를 포함한 프로그램의 실시하여, 자기효능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의 내용에 여가생활의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지적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적장애인에게 여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증가된 동기로 인해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참여가 증가했다는 Becker 등 (2010)[2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하지만, Becker 등 (2010)[26]의 연구결과는 한 명의 대상으로 인해 참여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통해 본 연구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연구 대상자의 지역이 도시에 거주하는 성인의 지적장애인으로 인해 거주 지역의 차이에 의한 변화는 보기 어려웠고, 대상자 수의 제한으로 인해 성별, 연령대별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지 못하는 알아보지 못 했다. 이에 추후 다양한 거주 지역, 연령대, 대상자 수의 증가를 통해 결과의 일반화를 한다면 보다 질 높은 연구가 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이 18세 이상 성인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었다. 44명의 지적장애인을 실험군 22명과 대조군 22명으로 나누어 실험군에는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대조군에는 대상자가 선택한 의미 있는 작업 활동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실시하여 자기효능감을 비교하였고, 사회참여 척도를 실시하여 사회참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 프로그램 적용 전보다 적용 후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가 증가하였으나, 실험군에서 자기효능감 및 사회참여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은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과 재활의 척도 중의 하나인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프로그램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적장애인의 성공적인 재활을 위해 작업 중심 전환 프로그램이 긍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성인의 지적장애인에게 작업 중심의 전환 프로그램 실시를 효율적으로 적용한다면, 지적장애인의 자기효능감 증가와 더불어 사회참여의 증가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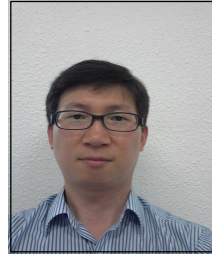
REFERENCES

- [1] H. Y. Jang, S. G. Choi. "The Effect of Exercise Intensity in Complex Training on leptin, growth hormone, IGF-1, body composition in middle school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Through Convergenc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0, pp.483-497, 2016.
- [2] Y. S. Moon, J. S. Han. "Influenc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elf-Efficacy on Stress-Coping Behaviors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417-45, 2016.
- [3] W. C. Kim. "Influence of exercise self efficacy and perceived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 stage of change for exercise behaviors in older adul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549-559, 2015.
- [4] O. Choi, W. S. Le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 No. 9, pp.455-463, 2014.
- [5] S. N. Seo, S. G. Lee, S. H. Lim. "The effect of positive parenting style, self-efficacy, stress, and depression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8, pp.327-333, 2012.
- [6] O. Choi, W. S. Lee. Mediating effects of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school adjustment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9, pp.455-463, 2014.
- [7] J. Andrews, M. Falkmer, S. Girdler, S. "Community participation interventions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with a neurodevelopmental intellectual disability: a systematic review". *Disability and rehabilitation*, Vol. 37, No. 10, pp.825-833, 2015.
- [8] H. K. Park, E. S. Ba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the Community Participation with Moder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Behaviors for the Physically Disabled Persons-Focused on the convergence view of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615-623, 2016.
- [9] D. R. Johnson, R. A. Stodden, E. J. Emanuel, R. Luecking, M. Mack. "Current challenges facing secondary education and transition services: What research tells us".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Vol. 68 No. 4, pp.519-531, 2002.
- [10] C. T. Myers, C. M. Schneck, S. K. Effgen, K. M. McCormick, S. B. Shasby. "Factors associated with therapists' involvement in children's transition to preschool".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65, No. 1, pp.86-94, 2011.
- [11] Woon-Ji, Seo. "The Effects of Community-based Transition Education Programs on Self-Determination Ability and the Pro-social Behavior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PhD. dissertation, Dague University. 2014.
- [12] M. Kardos, B. P. White. "The role of the school-based occupational therapist in secondary education transition planning: A pilot survey study".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59, No. 2, pp.173-180, 2005.
- [13] H. G. Juan, Y. Swinth. "As students become adults: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y in the transition process".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Schools, & Early Intervention*, Vol. 3, No. 3, pp.255-267, 2010.
- [14] W. H. Kim, B. J. Jeon. "Effect of Knowledge of Results and Performance on Motor Learning in Adult with Mental Retardatio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3, No. 2, pp.31-39, 2005.
- [15] Eun-Kyung, Ryu. "A Survey on Occupational Therapist 's Perception about Self-Determination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Master. dissertation, Dague University. 2010.
- [16] American Occupational Therapy Associatio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framework: Domain and proces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S (Suppl. 1), S1-S48, 2014.
- [17] J. H. Kim, Y. J. Kim. "A review of Literature study on functional Life skills of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Vol. 14, No. 1, pp.23-42, 2012.
- [18] K. Wynn, D. Stewart, M. Law, D. Stewart, T. Moning. "Creating connections: A community capacity-building project with parents and youth with disabilities in transition to adulthood". *Physical & occupational therapy in pediatrics*, Vol. 26, No. 4, pp.89-103, 2006.
- [19] M. Sherer, J. E. Maddux, B. Mercandante, S. Prentice-Dunn, B. Jacobs, R. W. Rogers.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Vol. 51, pp.663-671, 1982.
- [20] Hye-Young, Hong. "(The) Relationship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Depression". Master dissertation, Ewha University. 1995.
- [21] A. W. Heinemann, J. S. Lai, S. J. Magasi, Hammel, J., J. D. Corrigan, J. A. Bogner, G. G. Whiteneck, "Measuring participation enfranchisement".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Vol. 92, No. 4, pp.564-571, 2011.

- [22] Eun-Joo, Kim.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community participation indicators (K-CPI)". Ph.D.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2014.
- [23] H. G. Juan, Y. Swinth. "As students become adults: The role of occupational therapy in the transition process".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Schools, & Early Intervention*, Vol. 3, No. 3, pp.255-267, 2010.
- [24] J. Drysdale, J. Casey, A. Porter-Armstrong. "Effectiveness of training on the community skills of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Scandinav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Vol. 15, No. 4, pp.247-255, 2008.
- [25] E. H, Kim, S. H, Park. "A Review of Post-secondary Education Programs for Person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Across Colleges in the USA". *The Korean Society of Special Education*, Vol. 45, pp.43-71, 2010.
- [26] E. Becker, S. Dusing, "Participation is possible: A case report of integration into a community performing arts program." *Physiotherapy theory and practice*, Vol. 26, No. 4, pp.275-280, 2010.

김 환(Kim, Hwan)



- 2001년 8월 : 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취득
- 2011년 5월 : 캐나다 토론토대학 재활과학과 박사취득
- 2012년 :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뇌손상, 근거중심재활
- E-Mail : hwankimdaegu@naver.com

김 고 운(Kim, Ko-Un)



- 2012년 2월 :아주대학교 의생명학과 신경과학전공 석사취득
- 2013년 2월 ~ 현재 : 대구대학교 작업치료학 전공 박사과정 재학 중
- 관심분야 : 아동작업치료학, 신경과학, 신경계 작업치료학
- E-Mail : zsgold@hanmail.net

오 혜 원(Oh, Hye-Won)



- 2000년 8월 :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재활보건학 전공 석사취득
- 2012년 8월 :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 물리·작업치료학 전공 박사 취득
- 관심분야 : 인지심리학, 노인작업 치료학, 신경계 작업치료학
- E-Mail : ohw7517@naver.com